국토정책Brief는 주요 국토정책 현안을 적시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하는 주간지입니다.

2017/10.16

국토정책 Brief
KRIHS ISSUE PAPER

KRIHS POLICY BRIEF • No. 634

발행처 | 국토연구원 • 발행인 | 김동주 • www.krihs.re.kr

자연치유 수요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노용식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외

요약

❶ 100세 이상 인구 비중이 높은 장수지역과 자연치유를 통해 질병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들이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음

– 세계적 장수지역인 블루존과 치유마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유병자가 병상을 벗어나 자연에서 치유하거나 건강할 때도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자체들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자연치유를 활용 중

❷ 독일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이 있고, 네덜란드에서는 중증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마을 조성과 재정적 지원을 시행

– 독일은 「건강보험법」에서 일반인의 치유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하고, 바트뵈리스호펜시와 같은 요양지(Kurort)가 발달

– 네덜란드 호그벡 치매마을은 치매완화를 위해 계획적으로 조성되었으며, 공보험 지원이 가능하고 치매환자의 상태가 호전되며 평균수명이 증가하는 성과를 보임

❸ 우리나라도 질병을 치료만이 아니라 예방·치유의 관점에서 건강보험제도를 적용하고 국민 삶의 질 제고와 국토이용 차원에서 접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

–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에서 “예방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한다”고 명시된 법 취지를 고려

– 예방·치유 차원으로 접근할 경우 국민의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질 뿐 아니라 국가건강보험 재정도 건전화가 가능하고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 다양한 계획적 건강마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

정책방안

① 건강과 복지를 국민·국가적 관점에서 보고 치매·당뇨·아토피 등 만성질환·유병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시범마을 단지 조성

② 자연요법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취지에 맞도록 건강보험제도를 치료뿐만 아니라 치유·예방 차원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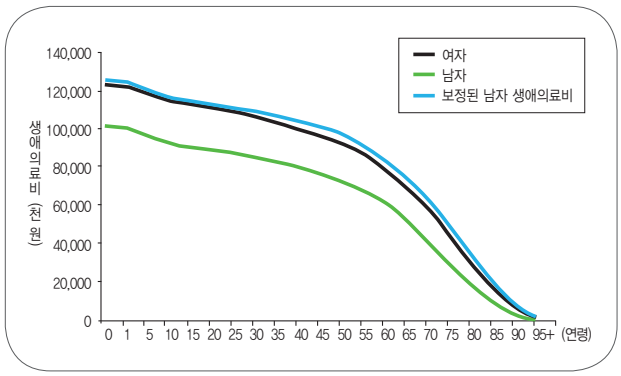
③ 노화와 질병을 건강보험과 복지의 영역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라 국민 삶의 질 제고와 국토이용 차원에서 지방의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

1. 산림치유, 섬치유 등 자연치유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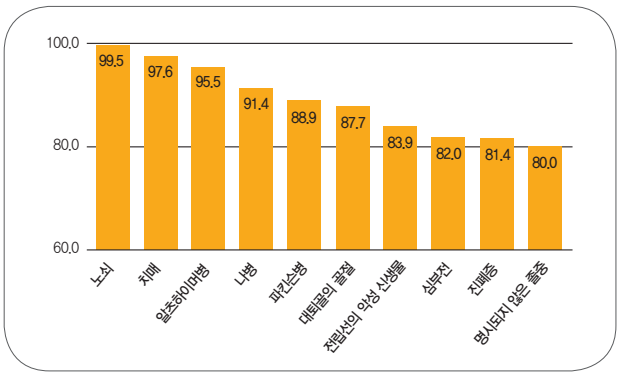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고령자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 개인의 일생에서 65세 이후 의료비 지출은 남성이 50.5%, 여성이 55.5%로 노년기에 질병으로 고통받으면서 생활
- 2015년 기준, 정신질환·심장질환 등 만성적인 내과질환 진료비 비중이 각각 80% 이상을 차지하여 삶의 질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서 2017년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 안심병원 확충 추진 등 고령화 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약속

그림 1 남녀 1인당 생애의료비(좌)와 노인진료비율 상위 10순위(우)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3)



자료: 건강보험통계(2016)

블루존(Blue Zone)이란 100살 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장수지역으로 그리스 이카리아섬, 미국 캘리포니아 로마린다 등이 소개되고 있음

- 장수요인으로는 식습관, 적절한 운동, 생활양식 및 문화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Buettner 2008)

건강한 삶을 찾기 위한 산림치유 등 자연치유를 보장하는 제도적인 시도 증가

미국 국립보건원(NIH 2016)에 따르면 '자연치유는 식이, 운동 등을 통해 자연치유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정통의학과 병행 시 치료에 도움이 되는 '기타 보완적(Other complementary)'으로 분류

독일에서는 치료의 일부로 제공되는 마사지, 목욕 및 물리치료의 보험적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예방차원의 프로그램도 건강보험 가능(「건강보험법(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제20조)

우리나라에서는 산림에서 자연치유를 주로 하는데 중환자 이외의 모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함

- 현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이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서 2022년까지 전국 권역별 국·공립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할 계획

2. 치유수요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

자연에 살면서 질병을 치유하고 건강을 회복·유지하는 국내외 사례가 다수 있음

◦ 자연발생적 사례로는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사례, 독일의 바트뵈리스호펜 사례 등이 있음
◦ 계획적 사례로는 전남 장성군 편백숲 사례와 네덜란드 호그벡 치매마을 사례 등이 있음

아토피·암 치유목적으로 사람들이 찾는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사례

명달리는 사방이 잣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산림환경과 자연자원이 풍부한 지역

◦ 인근 주변지역에는 통방산, 유명산 자연휴양림, 중미산 자연휴양림 등 자연환경이 양호
◦ 마을 내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아토피 체험관, 교육관, 케어실, 유기농 식당을 갖추고 산책로(2.5km) 조성

마을에는 중·장기 체류하는 사람들로 인해 등록된 주민수도 증가하고 주택 등 건축물수도 증가

◦ 명달리 주민등록인구는 사업초기 190명(2000)에서 372명(2015)으로 49% 증가(양평군, 각 연도)
◦ 건축물은 2001년 59동에서 2015년 163동으로 약 300% 증가

치료·요양도시로 100년간 유지해 온 독일 바트뵈리스호펜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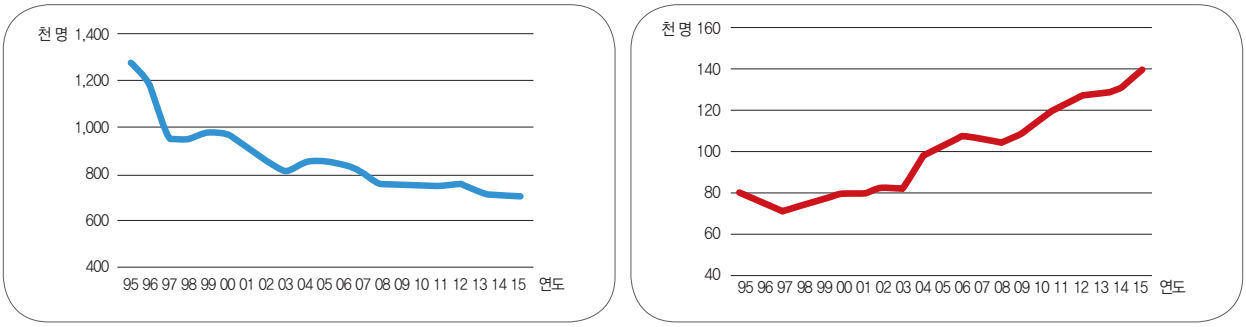
크나이프요법을 활용한 독일 최초의 요양지로 1920년에는 온천이 개발되면서 치료·요양도시로 탈바꿈

◦ 인구의 약 10~20%가 치유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간접적으로 관련 산업에 종사
※ 크나이프요법은 물·식물·운동·영양·기(밸런스) 등을 활용한 자연치료방법으로 크나이프 신부(F. S. Kneipp)가 고안

바트뵈리스호펜 치유도시 방문객은 2015년 기준 약 71만 명, 숙박객수는 약 14만 명으로 방문객수는 감소하였으나 숙박객수는 증가하여 지역경제에는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미침

◦ 크나이프요법을 통한 자연치유프로그램이 운영 중이고, 비용 중 일부는 의료보험에서 지원 가능
◦ 바트뵈리스호펜은 방문객은 물론, 직간접적으로 치유업무와 관련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징수하는 연간 250만 유로(약 39억 원)에 달하는 휴양세를 치유시설의 확충 및 관리에 활용

그림 2 지난 20년간 바트뵈리스호펜의 방문객수(좌) 및 투숙객수(우) 변화



자료: Bad Wörishofen(2016)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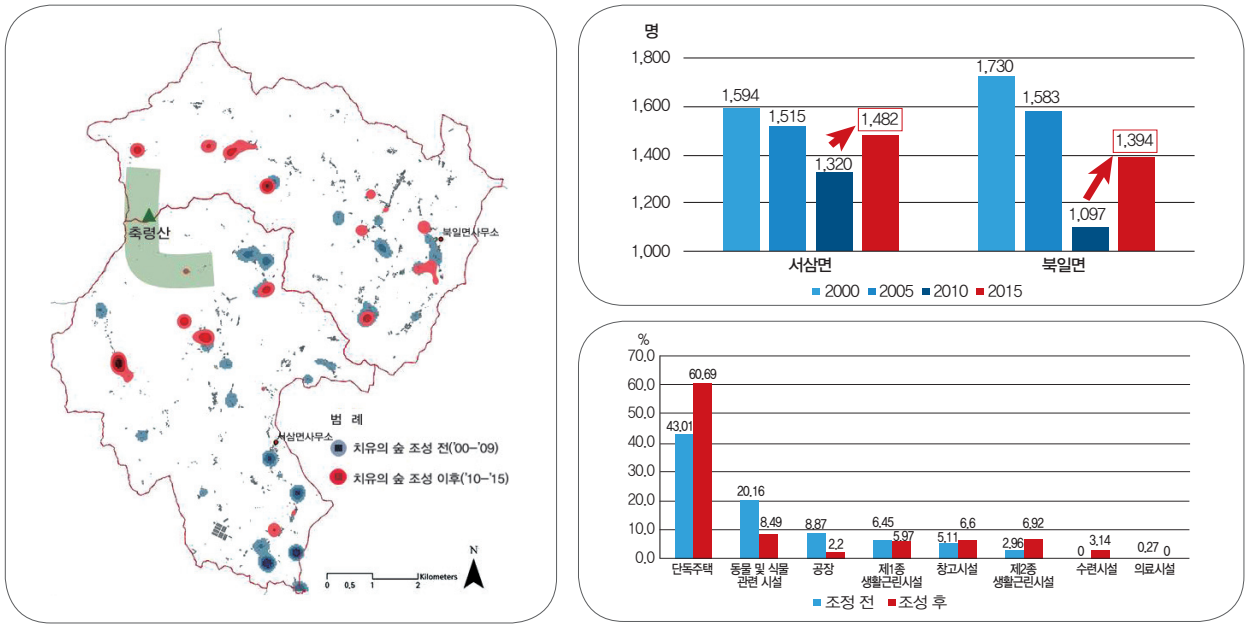
국내 최대 편백나무 인공조림지를 이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장성군 편백숲 사례

편백숲은 편백나무 763ha(44%), 삼나무 444ha(25%), 천연림 등 559ha(31%)로 조성

치유의 숲 조성 이후 축령산 기슭에 신규 건축물과 신규 유입자 증가 추세가 뚜렷

- 치유의 숲 조성 전에는 축사, 공장 등 1·2차산업 용도의 건축물이 주로 입지
- 치유의 숲 조성 후에는 단독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치유 방문객을 위한 3차산업 시설이 입지하였고 신규 인구가 증가하는 등 숲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그림 3 신규 건축물 입지 밀도분석(좌)과 인구변화(우상) 및 건축물 용도 비율(우하)



주: 건축물 종합공부(2017)를 이용, 각 기간연도 신축 건축물을 밀도(커널) 분석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각 연도)

중증치매환자를 위해 계획적으로 조성한 네덜란드 호그벡 치매마을 사례

병실에 갇혀 지냄으로써 발생하는 스트레스, 근심, 분노, 공포, 우울증 등으로 인해 치매가 악화된다는 것에 주목하여 치매환자가 마을 내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도시풍, 인도네시아풍, 기독교풍 등 7개 양식의 주택과 슈퍼마켓, 레스토랑, 의료시설 등 배치
- 호그벡 치매마을은 삶의 질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인적(행복, 건강, 치유, 자아존중 등)·환경적(집에서의 느낌, 일거리, 독립성과 자율성, 물리적 환경 등) 요인들을 고려하여 조성

테라피스트, 의사 등 291명의 직원과 140명의 자원봉사자 등 400여 명이 상주하여 약 150여 명의 치매환자를 돌봄으로써 치매환자보다 많은 운영관리 인력이 특징

- 1인당 월 이용료는 5,800유로(약 754만 원)이고, 네덜란드 사회보험시스템에서 재정을 지원(최대 100%)
- 월 이용료에는 의사 등 인건비, 주거비, 식비, 의약비, 치유활동비 등이 모두 포함

그림 4 호그벡 치매마을 지상층(좌)과 2층 시설 구성(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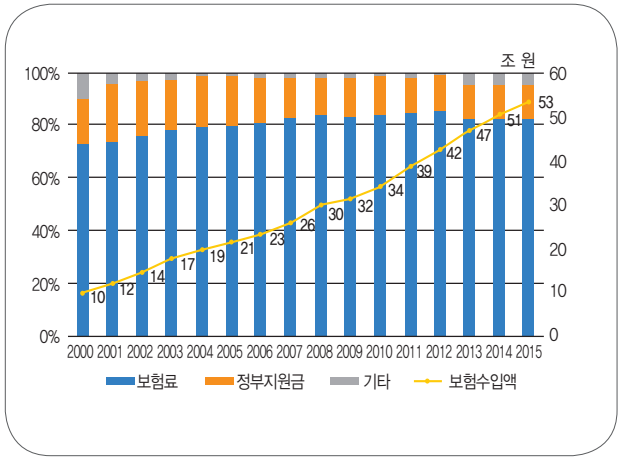
주: 전체면적 1만 5,310㎡ 중 건물과 대지가 각각 50%를 차지(CLPNA 2014)
자료: https://hogeweyk.dementiavillage.com/(2017.9.26. 검색)

※ 2017년 호주에서도 최초로 연방정부 지원 아래 HESTA, Social Ventures Australia, Glenview의 파트너십을 통해 Korongee 치매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비 마련, 2018년 착공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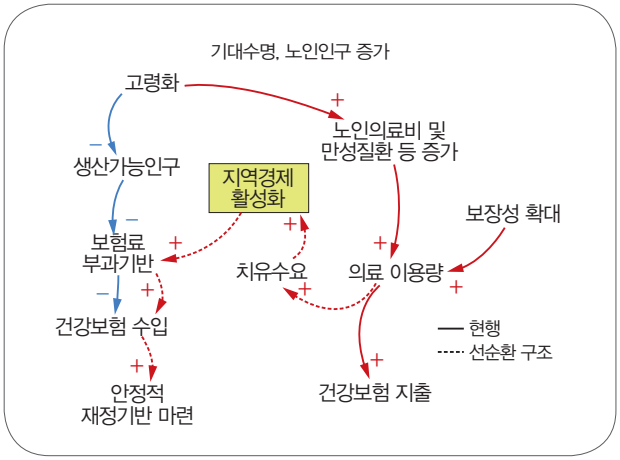
5 치유에 대한 수요를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하면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도 기대

- 치유수요 증가는 지방의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방소멸문제 해결 기대
- 지역경제 활성화로 소득이 증대되고 보험료 수입증가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의 선순환 구축 기대

그림 5 건강보험수입 구성과 추이(좌)와 건강보험 재정현황 및 개선(우)



자료: 건강보험통계(2016)



자료: 사회공공연구원(2016) 참조, 재작성

3. 정책적 시사점

저출산·고령화 등 건강보험 관련 외부환경을 의료의 영역보다는 지역성장의 요소로 접근

◦ 치유관련 이용자 증가, 정주·입주, 관련 시설 종사자 증가 등은 지역성장의 새로운 외부환경요소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호그벡마을처럼 치매마을·당뇨마을·아토피마을 등 만성질환·유병자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시범마을·단지 조성 필요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명달리 같은 암 치유마을 외에도 아토피마을 등 소규모로 계획·시험 중인데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강구

의사의 진단을 통해 환자가 장기간 치유하는 자연치유요법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제도 개선

독일 「사회보험법」에서 의료보험제도를 통해 예방차원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비용 청구 가능

우리나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에 "예방…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치료보다는 치유, 예방을 우선하는 제도로 개선 필요

질병을 건강보험과 복지의 영역으로만 간주하지 않고 국민 삶의 질 제고와 국토공간 이용 차원에서 판단하여 지방의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

국민들이 폐쇄된 시설에서 질병치료를 받기보다는 산림, 숲, 바다, 섬 등 자연에서 치유·건강장수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제도 연계

참고문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서울: 청와대.
기획재정부. 2015. 2060년 장기재정전망. 세종: 기획재정부.
사회공공연구원. 2016. 건강보험재정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서울: 사회공공연구원.
양평군. 2000, 2003, 2005, 2010, 2015. 통계연보. 양평: 양평군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 생애의료비 추정 및 특성분석. 청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Bad Wörishofen. 2016. *Kur–und Tourismusbericht 2015*. Byern: Bad Wörishofen.
Buettner, D. 2009. 세계장수마을 블루존. 신승미 역. 파주: 살림출판사.
CLPNA Think Tank. 2014. Be the Hogeweyk Care Concept.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건강보험통계(https://nhiss.nhis.or.kr)
통계청. 2000, 2005, 2010, 2015. 인구총조사(http://kosis.kr/index/index.jsp)
NIH 홈페이지. www.nccih.nih.gov

노용식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책임연구원(ysroh@krihs.re.kr, 044-380-0225)
최　유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연구원(ychoi@krihs.re.kr, 044-960-0361)
권영섭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yskwon@krihs.re.kr, 044-960-0165)

KRIHS 국토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전화 044-960-0114
홈페이지 www.krihs.re.kr
팩스 044-211-4760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